



기후위기, 미래를 만드는 방법

박 훈 (지음) |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(기획)
도서출판 풀 | 2022 | 240쪽

박 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



2022년 2월,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(IPCC)의 제2실무그룹이 제6차 평가보고서(기후변화의 영향, 적응, 취약성)를 공개했습니다. 이 보고서는 예전의 보고서(제5차 평가보고서나 최근의 특별보고서)와 유난히 다른 점이 느껴집니다.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개발도상국 국민, 그리고 전 세계의 빈곤층과 어린이, 노약자를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고 있음을, 끊임없이 그래프와 표로 보여주고 또 강조합니다. 한편, 지난 4월 초 공개된 제3실무그룹의 제6차 평가보고서는 ‘모든 부문에서 지금 당장 극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하지 않으면, 지구온난화 1.5°C 이내 억제는 절대 이를 수 없다’(Now or never!)고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. 이 두 보고서의 결론을 종합하면, 우리가 ‘지금 당장’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부터 벼랑 너머로 떠밀리게 됩니다. 이미 '지금 당장'이라고 했을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 전 지구의 기후위기는 그만큼 더 악화했습니다만, 이 책이 우리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고민하고 행동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(우리 대신 온실가스를 흡수해주던 나무들을 또 몇 그루나 베었을지 모르는 종이로 만든 책을 펴내어서 죄송합니다.) - 글쓴이 박 훈